

항저우AG 女축구 토너먼트 대진 변경

한국, 8강서 일본 만나는 것으로 준비
별도 공지 없이 갑자기 대진 바뀌어
캄보디아 출전 포기 때문으로 보여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개막이 목전인 가운데, 여자축구 토너먼트 대진이 별도 공지 없이 바뀐 것으로 확인됐다

콜린 벨 감독이 이끄는 여자대표팀은 18일 오전 파주국가대표트레이닝센터(NFC)에서 항저우 아시안게임을 대비하는 마지막 훈련을 진행했다.

19일 결전지인 항저우로 출국하기 전 미디어에 대표팀의 모습을 공개하는 시간이 있었다. 선수들의 각오도 들을 수 있었다

'에이스' 지소연은 "우리가 조 1위로 올라가면 일본을 만나게 될 텐데 부담스럽지는 않다. 우리가 우리 것을 못하는 것에 대해 그게 더 부담이 될 것 같다며 일본의 맞대결에 대한 자신감을 보였다"

지소연이 이런 말을 한 배경에는, 한국이 조 1위로 올라가면 D조에 위치한 1위와 만나는 까닭이었다. D조 1위는 일본이 유력하다는 평가가 따른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대진표가 바뀌었다. 애초 이번 아시안게임 여자 축구는 17개 팀이 참가해 A~C조는 3개 팀씩, D~F조는 4개 팀씩 배정되는 구조였으나, 갑자기 변경됐다.

지난 15일 캄보디아 '크메르 타임즈'에 따르면 캄보디아 여자 축구 대표팀이 선수 구성에 어려움을 겪어 출전을 포기했다.

이에 북한 싱가포르, 캄보디아로 구성된 C조가 3개팀이 아닌 북한, 싱가포르 2개 팀으로 조를 운영하게 됐다. 대회 홈페이지에 안내된 참가팀 및 조 편성에서도 C조는 없다.

바뀐 일정도 확인할 수 있다. 대회 홈페이지 일정에는 21일 여자 C조 1차전은 취소처리 돼 있고, 24일, 27일 이틀 동안 북한과 싱가포르가 2연전을 펼치는 걸로 설명이 돼 있다.

이에 따라 8강 토너먼트 일정이 바뀐 것으로 보인다. 현재 나온 일정에 따르면 한국이 속한 E조 1위는 D조 2위 혹은 C조 1위와 붙는 걸로 바뀌었다.

즉 지소연의 말처럼 D조에서 일본이 2위를 기록한다면 한일전이 성사될 수도 있었지만, 일본의 전력을 고려하면 조 1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커 8강에서 만나는 경우의 수는 아주 희박하다.

8강에서 일본을 만나는 것을 고려해 대회를 준비했던 별호는 대회 직전에 계획을 바꿔야 한다.



콜린 벨 감독이 이끄는 여자 축구 대표팀이 18일 오전 파주NFC에서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대비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대한축구협회 제공)

더 큰 문제는 대한축구협회가 이 사실을 몰랐다는 점이다. 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조직위)가 별도의 공지를 하지 않았다.

협회 관계자는 이날 뉴시스를 통해 "대진 일정 변경과 관련한 공문이나 통보는 없었다"며 당황함을 감추지 못했다. 대한체육회 관계자도 "별 다른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지난 8일 조직위로부터 이번 대회 전반에 관해 받은 자료에도 일정 변경에 대한 언급은 없었고, 수정된 대진표만 안내받았다고 한다.

지난 2010 광저우 대회부터 2018 자카르타·팔렘방 대회까지 3회 연속 동메달을 딴 기세를 이어, 이번 대회에 진출한 금빛 사냥을 꾀했는데 출발부터 쉽지 않은 여자 축구다. /뉴시스



지난 15~17일 김제시 일원에서 열린 '제17회 전라북도 장애인체육대회'에서 종합우승을 차지한 익산시 장애인체육회 선수단이 정한을 익산시장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북 장애인체전 종합우승 '쾌거'

익산시, 금 11·은 11·동 15개로 14개 시군 중 1위

익산시장애인체육회선수단이 제17회 전라북도 장애인체육대회에서 종합우승을 달성했다.

18일 시에 따르면, 익산시는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김제시에서 진행된 제17회 전라북도 장애인체육대회에 선수 및 임원 250여명이 참가해 육상 등 대부분 종목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익산시 장애인체육회 선수단은 14개 종목에 참가하여 금11개, 은 11개, 동15개의 결과를 가져왔으며, 특히 배드민턴과 게이트볼, 당구, 론볼 4종목에서 많은 점수를 획득하여 종합별 우승이라는 타이틀을 거머쥐었다.

익산시장애인체육회 설립 이전 매년 하위권에서 머물렀던 익산시는 2019년 익산시장애인체육회 설립 이후 코로나19 시기를 제외하고 작년 3위, 올해 종합우승을 하며 눈부신 성장을 보였다.

시는 그동안 반대편체육센터 등

장애인체육시설 인프라 확충과 다양한 장애인 체육 프로그램, 찾아가는 생활체육서비스 등을 추진해왔다.

이번 대회 총감독을 맡은 왕경배 사무국장은 "장애인 종목단체의 아낌없는 지원과 장애인체육발전을 위한 시의 노력에 감사한다"며 "이를 토대로 선수들과 임직원들의 단합하여 종합 우승이라는 성과를 낼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익산시장애인체육회장인 정현을 시장은 "이번 대회의 큰 성과는 익산시장애인체육회 임직원 및 봉사단의 꾸준한 지원, 봉사활동의 합작품이라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익산시 장애인체육의 다양한 종목 확대 및 장애인체육을 위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익산시장애인체육회는 비장애인파 같이 활동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고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익산=이재훈 기자



지난 17일 전주대학교 인조구장에서 열린 K4리그 2022 28라운드 경기에서 전주시민축구단 선수들과 서포터즈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주시민축구단 '2연승'... 중위권 진입 교두보

K4리그 28라운드서 FC충주에 5대 1 대승

전주시민축구단은 지난 17일 전주대학교 인조구장에서 열린 'K4리그 2022 28라운드 경기에서 홈팬들의 열렬한 응원 속에 FC충주를 5대 1로 이겼다

이날 승리로 전주는 2연승을 거두며, 중위권 진입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했다

경기 초반 전주는 상대를 강하게 압박하며 전방에서 득점 기회를 찾았다. 결국 전반 21분 전주에서 첫 골이 나왔다. 용환빈이 상대 진영 중앙에서 김상원의 패스를 받아 침착하게 밀어 넣었다

이후 양 팀은 공방전 속에, 전반을 1대 0으로 마쳤다.

후반 시작과 함께 전주는 선수를 교체하는 등 공격적인 플레이로 후반 5분만에 용환빈의 멀티 골이 나왔다

김도형이 상대 오른쪽에서 슈팅한 공이 골키퍼 막고 흘러나오자 용환빈이 달려들어 골로 마무리 지었다.

한편 전주는 후반 교체로 들어온 양태열이 20분과 23분 연속 골을 터트리면서 대승을 거뒀다. /정은성 기자

파크골프 동호인들, 진안서 실력 겨루다

진안홍삼배 전국 파크골프대회 성황리 마쳐

남자부 정병호·김봉심, 여자부 조선옥 '우승'

지난 16일부터 17일까지 2일간 진안군 파크골프장(용담호 자연생태 습지공원)에서 열린 제9회 진안홍삼배 전국 파크골프 대회가 우천중에도 성공적으로 종료됐다.

진안군체육회가 주최하고 진안군파크골프협회 주관한 이번 대회는 전국 파크골프 동호인 450여명이 참가하여 비가 오는 와중에도 서로 실력을 겨뤘다

대회는 4개 그룹 남자와 여자 2개부로 나뉘어 16일 1차, 17일 2차로 경기를 치러 티수가 가장 적은 선수가 우승하게 됐다.

대회 결과 남자부 우승은 정병호(광주광역시) 선수가 차지했다. 여자부 준우승은 최선녀(광주광역시)



진안군체육회가 주최하고 진안군파크골프협회 주관한 제9회 진안홍삼배 전국 파크골프 대회가 지난 16~17일 열렸다.

선수, 여자부 우승은 조선옥(광주광역시) 선수가 차지했다. 여자부 준우승은 최선녀(광주광역시)

시) 선수가 은메달을 획득했고 3위는 남자부 양승호(대전광역시), 김승우(강원특별자치도), 박현복(대전광역시) 선수들과 여자부 이선옥(전북 익산) 선수가 차지했다.

전준성 군수는 "먼저 주말 동안 비가 예보된 상황에서도 호남의 지붕, 진안을 찾아주시는 선수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대회 진행에 있어 선수분들과 관계자분들 모두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주시길 바라며 진안의 기운을 받아 모두 좋은 성적을 얻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열리는 진안홍삼축제도 방문해 즐겨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 지름길

SJ 산림조합 축! 전주매일 창간



2023 녹색장학사업 산림일자리 장학금 접수 안내 2023. 09. 4. ~ 10. 4.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서 예비 및 현직 산림·임업인의 전문 역량 강화, 단기직무체험을 통한 적합직무 발굴·지원을 목적으로 녹색장학사업 일자리장학금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 지원규모
- 직무체험 · 장려금 30명 - 50만원/인
- 학급근로 · 학위취득 10명 - 100만원/인
- 자격취득 50명 - 50만원/인



접수방법

지원서 작성 후 관련 서류 전자우편 접수 (green1@fowi.or.kr)
제출서류 PDF로 변환 후 각 서류 파일 1개로 병합하여 제출

문의사항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녹색장학사업 담당자
- E메일 : green1@fowi.or.kr
- 전화 : 042-719-4168, 4354
* 가능하면 이메일 문의
* 전화상담은 평일(근무일) 10~17시
* 점심 제외

※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홈페이지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장학생' 검색 > "2023년 녹색장학사업 장학생 모집 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